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3월 미 소매 판매 1년 중 최고치…이란 여파 휘발유값 상승 불구
- WSJ: WSJ: What Markets Think of Kevin Warsh
- YahooFinance: 트럼프, “새 연준 의장이 빨리 금리 인하 안 하면 실망”
- WSJ: 파월 의장, 의작직 퇴임 후 이사로 계속 남을까?
- WSJ: 플로리다 인구 줄어…고비용으로 중산층 떠나

[중동 위기]
- CNBC 트럼프 “이란과 좋은 합의 기대한다”
- Bloomberg: 이란의 평화 협상 참여 불투명하다

[오일]
- Bloomberg: 글로벌 오일 거래상들, “전쟁에 따른 ‘수요 파괴’” 우려

[미 관세]
- CNBC: 트럼프 "관세 환급 않한 기업체들 고맙고 잊지 않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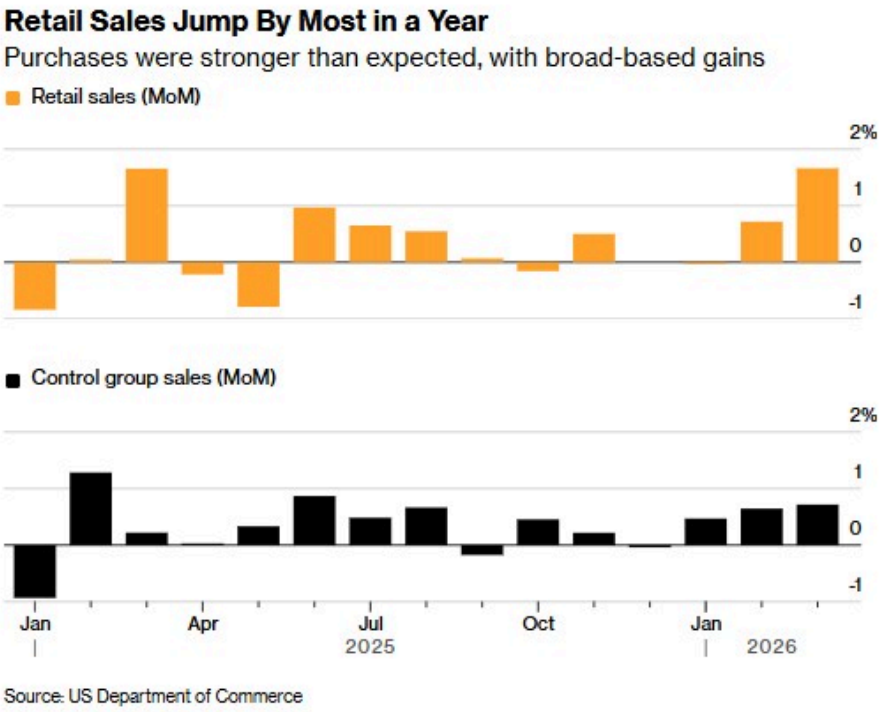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TechCrunch: 애플의 팀 쿡 후계자 John Ternus는 누구인가?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Bloomberg: US Retail Sales Surge by Most in a Year as Spending Extends Beyond Gas
3월 미 소매 판매 1년 중 최고치…이란 여파 휘발유값 상승 불구

- 3월에 미 소매 판매가 지난 1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들이 이란 전쟁에 따른 휘발유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소비 품목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오늘 화요일 연방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소매 구매 규모는 2월에 0.7% 상향 조정된 뒤 3월 들어서는 1.7% 상승했다.
- 3월 소비 지출은 휘발유 지출이 기록적으로 급등했으나 가구, 전자제품, 일반 용품 등 전반적인 소비재에 지출이 늘어났다.
- 이는 3월에 소비기 계속 견조하고 지난 수주간 세금 환급이 미 가구들에 들어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4월 30일 정부가 발표할 1분기 GDP 추정치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사

WSJ: What Markets Think of Kevin Warsh
시장은 새 연준 의장 지명자 어떻게 평가하나?

- 1월에 트럼프에 의해 새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Kevin Warsh에 대해 월가는 안도감과 신중함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향후 연준이 직면할 주요 정책 과제들에 대해 그의 과거 정책 성향이 어떻게 적용될지 시장이 가늠하려 했기 때문이다.
- 트럼프가 그의 지명을 발표한 다음 날 주식시장은 하락했는데,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그가 연준 의장이 될 경우 다른 후보들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측근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의 Kevin Hassett과 비교할 때 이러한 인식이 두드러졌다.
- 반면 채권 금리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시장이 Warsh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보다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인물로 신호를 보였기 때문이다.
- 전반적으로 시장은 파월 의장에서 Warsh로 리더십이 넘어가더라도 통화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선물시장에서도 향후 12개월 동안 금리가 대체로 유지되거나 소폭 하락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사

YahooFinance: Trump says he would be disappointed if Warsh didn't cut rates quickly
트럼프, “새 연준 의장이 빨리 금리 인하 안 하면 실망”

- 트럼프는 오늘 화요일 CNBC 인터뷰에서, 자신의 연준 의장 지명자인 Kevin Warsh가 상원 인준 후 취임하자마자 즉각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는 최근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금리 인하)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길 기대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 한편 트럼프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새로운 연준 건물의 건설 비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연준의 예산 집행과 시설 투자 규모를 둘러싼 정치적·재정적 점검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

기사

WSJ: Will Jerome Powell Leave the Fed After Giving Up the Chair?
파월 의장, 의작직 퇴임 후 이사로 계속 남을까?

- 지난달 연준 정례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자신에 대한 연방 법무부의 연준 건물 리모델링 지출 관련 조사가 “완전히, 투명하게,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연준을 떠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 파월 의장 임기는 5월 15일에 종료되지만, 그는 이사로서 2028년 초까지 남을 수 있다. 또한 의장 후임자가 그때까지 상원에서 인준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임시 의장(chair pro tempore)’으로 계속 연준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렇게 해왔으며,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지난주 TV 인터뷰에서 파월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해임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기사

WSJ: Florida’s Population Boom Fizzles as High Costs Drive Away Middle Class
플로리다 인구 줄어…고비용으로 중산층 떠나

- 플로리다의 인구 급증이 주춤하고 있으며, 높은 생활비로 인해 중산층이 떠나고 있다. 주내 올란도 등 주요 도시들은 이주해 오는 인구가 줄거나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
- 최근 플로리다의 이주 패턴은 바뀌고 있다. 생활비 부담으로 노동 연령층이 떠나고, 신규 유입도 감소하는 추세다. 인구 증가에 의존해 온 경제 구조 역시 생활비 급등과 평균적인 임금 수준 속에서 압박받고 있다.
- 마이애미를 비롯한 남부 지역은 최근 부유층 유입이 이어졌지만, 이는 마이애미 지역의 고용 증가 둔화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기사

[중동 위기]

CNBC: Trump tells CNBC he expects U.S. to make ‘great deal’ with Iran
트럼프 “이란과 좋은 합의 기대한다”

- 트럼프는 내일 수요일 끝나는 이란과의 휴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강경한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결국 훌륭한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이란의 해

군과 공군, 지도부를 무력화했음을 강조하며,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난 셈"이라고 평가했다.
- 특히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휴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수요일 이후 전쟁 재개 혹은 극적인 타결 여부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기사

Bloomberg: US-Iran Talks In Limbo as Clock Ticks Toward End of Truce
이란의 평화 협상 참여 불투명하다

- 내일 수요일 휴전 만료를 앞두고 이란의 평화 협상 참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 트럼프는 이란이 협상에 나설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며, 합의 실패 시 즉각 폭격을 재개할 준비가 됐다고 압박했다. 현재 JD 밴스 부통령이 협상지인 파키스탄으로 향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 반면 이란은 아직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 협상을 이끌었던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위협 속에서의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7주간 이어진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기사

[오일]

Bloomberg: Top Oil Traders Warn Worst of Demand Hit From War Is Yet to Come
글로벌 오일 거래상들, “전쟁에 따른 ‘수요 파괴’” 우려

- 세계 최대 석유 거래상들이 이란 전쟁에 따른 '수요 파괴' 현상이 더욱 커지며, 경제적 타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서 ‘수요 파괴’란 유가가 폭등해 소비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서, 석유 소비 자체가 강제로 차단되는 현상을 뜻한다.
- Gunvor그룹은 다음 달 소비 감소 폭이 현재의 두 배인 하루 500만 배럴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국제에너지기구는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페르시아만 일대의 석유 공급량이 하루 약 1천3백00만 배럴 급감했다고 밝혔다. 즉, 공급 제한이 가격 폭등을 일으켜 경제 활동을 멈춰 세우는 '수요 파괴'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사

[미 관세]

CNBC: Trump says he'll 'remember' companies that don't seek tariff refund
트럼프 "관세 환급 않한 기업체들 고맙고 잊지 않겠다"

- 트럼프는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관세를 청구하지 않는 기업들을 "기억하겠다 감사의 뜻을 표했다.
- 현재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불법 판결을 받은 약 1천6백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절차를 시작했다. 애플, 아마존 등 일부 대기업은 트럼프의 심기를 고려해 아직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트럼프는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정말 훌륭한 결정이며, 나를 잘 아는 행동"이라며 "그런 기업들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TechCrunch: Who is John Ternus, the incoming Apple CEO?
애플의 팀 쿡 후계자 John Ternus는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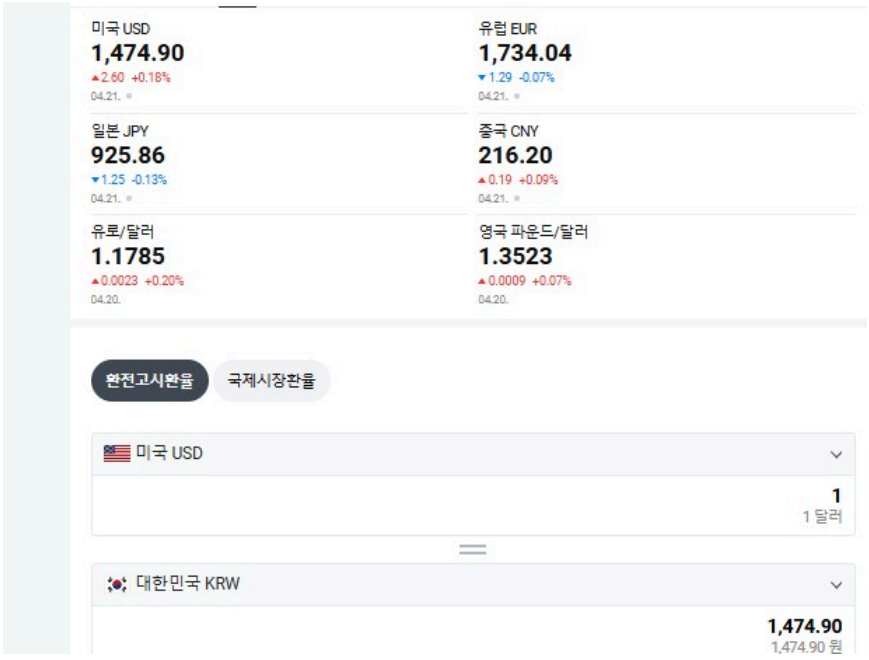
- 애플의 하드웨어 혁신을 이끌어온 존 터너스 수석 부사장이 팀 쿡의 뒤를 이어 애플의 차기 CEO로 결정됐다. 그는 올해 9월 1일 CEO로 공식 취임하며, 팀 쿡은 이사회 의장직으로 있게 된다.
- 만 51세인 터너스는 펜실베이니아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애플에 입사해 25년 동안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핵심 제품의 설계를 주도해 온 엔지니어 출신 리더다. 특히 그는 인텔 칩에서 자체 칩인 '애플 실리콘'으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기술적 역량을 증명했다.
-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는 그는 향후 생성형 AI 통합과 차세대 하드웨어 혁신을 통해 애플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US 30	49,365.60	-77.1	-0.16%
US 500	7,092.30	-16.9	-0.24%
Dow Jones	49,356.22	-86.34	-0.17%
S&P 500	7,092.25	-16.89	-0.24%
Nasdaq	24,385.43	-18.96	-0.08%
S&P 500 VIX	19.77	+0.90	+4.77%
Dollar Index	98.172	+0.265	+0.27%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